



금교창
대한화학회 회장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고분자학회는 고분자 과학 및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며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고 국내외 학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기초과학 연구의 토대를 강화하고 산업과 연계된 고분자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분자 과학은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 분야로서 소재과학, 화학, 생명과학, 에너지 및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특성 속에서 한국고분자학회는 창의적인 연구와 활발한 학술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고분자 과학 연구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고분자학회는 회원 수가 5천 명 이상이며 4개의 지부와 10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다양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의 고분자학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의 간행물을 보면 “Macromolecular Research”와 “Polymer(Korea)”라는 두 가지의 국제적으로 우수한 SCIE 등재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소식지인 “고분자 과학과 기술”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고분자학회 50주년, 대한화학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화학회 역시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고분자학회와 긴밀한 학문적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946년 대한화학회 창립 당시에 이승기, 안동혁, 김동일 등의 고분자화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대한화학회지” 발간 초창기에는 고분자 화학 논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양 학회는 공동 학술활동과 연구 교류를 통해 화학과 고분자 과학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첨단소재,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소재 등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분자 과학은 미래 소재 기술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학문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고분자학회가 창의적인 연구와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학술단체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새로운 50년 역시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빛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화학회 회장 금교창